

전국 대학생 공사들, 빛고을서 꿈을 쏜다

'광주여대 총장기 제26회 대학양궁선수권' 21~23일 열려 19개 대학 220여명 참가...리커브·컴파운드 등 10개 부문

전국의 대학생 공사들이 빛고을서 꿈을 쏜다.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는 '광주여대 총장기 제26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21일부터 나흘간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차세대 한국 양궁을 짊어질 전국 19개 대학교 2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남녀 개인, 단체전과 사·도별 남녀선수 1명씩이 출전하는 혼성전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친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대학생 선수들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다. 학교 간 친선도모와 선수들의 화합의 장으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또 대회를 통해 매년 우수한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 한국양궁 발전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4회 대회부터 13회째 대회를 주관

하는 광주여대는 기보배(2012 런던), 최미선(2016 리우), 안산(2020 도쿄) 등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명문으로,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대학스포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광주여대 전 교직원들은 참가 선수단이 불편함 없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이선재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광주여대 총장)은 "젊은 지성을 대표하는 대회이니만큼 선수들 모두는 자부심을 느끼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자·타·체 균형 있는 발전으로 선배들의 영광을 잇는 국가대표 선수로, 연구하는 지도자로,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경쟁과 승패를 떠나 양궁과 함께 이어 온 우정과 화합이 '광주공동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더욱 환하게 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여대 총장기 제26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21일부터 나흘간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 <광주여대 제공>

광주 윤림중3 허도경, 발달장애인 골프 우승



'제2회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허도경(윤림중 3년).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단체전 김하늘 프로·이양우 선수와 한 조 개인전은 81타 기록으로 준우승 "내년 우승해 US오픈 참가할 것"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허도경(윤림중 3년)이 발달장애인 아마추어 골퍼 발돋움 위한 '제2회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허도경은 지난 16일 경기 파주 노스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김하늘 프로, 이양우(서울)와 함께 한 조를 이뤄 출전해 합계 233타를 기록,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허도경이 81타, 김하늘이 70타, 이양우가 82타를 각각 기록했다. 허도경은 단체전 성적으로 개인전 성적을 감축하는 이번 대회에서 78타를 기록한 박도권에 이어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3년 전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서문학 팀장의 권유로 골퍼를 시작한 허도경은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파크골프 소속 선수'로 아버지인 허

준철 씨와 함께 골퍼 연습에 매진해 꾸준히 실력을 길러왔다.

'2022년도제16회 스포셜올림픽하계대회'에서 레벨(Level) 2(9홀) 42타 1위·레벨 4(9홀) 44타 3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익산에서 열린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스크린골프(18홀) 부문'에서 84타수로 준우승을 했고, 첫 참가한 이번 어댑티브 오픈에선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허도경은 "TV로만 보던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게 돼 너무 행복했다"며 "올해 준우승을 한 만큼 더욱 골퍼 연습에 매진해 내년 대회에는 꼭 우승해 US오픈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2회를 맞은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은 아마추어 골퍼와 프로 선수가 한 조가 되어 플레이하는 이벤트 대회로, 발달장애인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프로 골퍼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개최됐다. 개인전 최종 우승자에게는 USGA(미국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US 어댑티브 오픈' 출전 경비(100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23 양평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57kg급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순천시청 박다솔(왼쪽 세번째)과 양서우(왼쪽 두번째). <전남유도회 제공>

전남 유도, 전국실업유도선수권 활약

순천시청 박다솔·신지영 금메달...금·은·동 2개씩 6개 메달

전남 유도 선수단이 '2023 양평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20일 전남유도회에 따르면 전남 유도 선수단은 지난 17~19일 경기도 양평 용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 2개, 은 2개, 동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일반부 -57kg에 출전한 순천시청 박다솔이 같은 팀 동료 양서우와의 결승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서우는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했다.

여일반부 +78kg의 순천시청 신지영은 결승서 박다솔(포항시청)을 상대로 안다리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따내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주시청은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양평군청에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주시청 심재민은 남일반부 -66kg급에서, 여주시청 김영성은 -100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서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성료

화순군, 3개 팀 6개 메달 획득

화순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화순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등부)'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부 125개 팀 1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 남녀 단식, 남녀 복식, 혼합복식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화순군에서는 3개 팀이 6개의 메달을 획득해 배드민턴 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고등부에서 전남기술과학고가 남자부 단체전에서 준우승, 이 학교 박성주가 남자 단식 1위를 차지했다.

박성주는 화순고 연서연과 함께 혼합복식 1위



화순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화순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등부)' 경기 모습.

를 차지했다.

여자 복식에서 화순고 연서연-김미주가 2위, 김미소-안원희가 3위를 기록했다.

중등부에서는 화순중 정다환이 남자 단식 3위의 성적을 거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여자수영 대령배 선전...은 3·동 1개

광주시체육회 여자수영팀이 제42회 대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다.

광주시체육회 여자수영팀은 지난 12~17일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허민지가 13일 자유형 50m 여자일반부 결승에서 26초27의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25초89의 정소은(울산시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지원은 14일 자유형 800m 여일반부 결승에서 8분48초76으로 1위 이정민(안양시청·8분47초68)에 이어 2위로 결승선에 도착, 은메달을 획득했다.

유지원은 또 16일 자유형 400m 여일반부 결승에서 4분18초3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예은은 16일 배영 200m 여일반부 결승에서 2분



자유형 50m 여자일반부 은메달을 획득한 허민지(왼쪽)와 배영 200m 여일반부 은메달을 따낸 한예은. <광주시체육회 제공>

15초30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2관 오픈하이머, 보호자
- 3관 오픈하이머, 메가로튼 2
- 4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비공식작전
- 5관 달짝지근해: 7510
- 6관 오픈하이머
- 9관 밀수
- 7관씨네거름 밀수, 엘리멘탈, 비공식작전
- 8관씨네거름 보호자, 메가로튼 2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CHUNG TRIO CONCERT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